

● 전기협회, 신규 전기회관 매매계약 체결

대한전기협회가 신규 전기회관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사옥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는 지난달 9일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NIPA빌딩'(서울시 송파구 소재)을 신규 전기회관으로 매입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무영 상근부회장, 오재형 전무이사, 각 처장, 노사협의회 대표 등 전기협회 관계자와 박수용 원장, 신재식 SW융합진흥본부장, 각 단장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기협회가 현재 사옥으로 사용 중인 전기회관(서울시 중구 소재)은 1967년 준공 이래 47년이 경과되면서 건물물이 많이 노후화 된 상태다. 특히 전기협회의 조직 확대에 의해 일부 부서가 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및 업무상 불편이 가중돼 왔다.

무엇보다 2020년 이후 청계천 부근이 분할 개발될 예정인데, 현 전기회관 부지가 역사공원(이벽의 생가터) 부지에 편입됨으로써 현 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돼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협회는 투명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서울 및 경기 지역 50여 군데에 대한 자료조사를 거쳐 20여 곳의 건물·토지를 직접 답사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NIPA 빌딩'을 신규 전기회관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을 체결한 'NIPA빌딩'은 1992년에 준공된 건물로, 대지 1,470여㎡, 건평 1만7,450여㎡ 규모에 지하5층, 지상15층으로 지어져 있다.

특히 가락시장역 더블역세권(3·8호선) 및 잠실역(2호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아울러 인근에 KTX 수서역이 2016년 개통 예정으로 있어 지방에서 찾는 이들에게도 접근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협회, KEPIC 성능시험 세미나 성료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시 소재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KEPIC 성능시험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전소의 성능시험 표준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기협회와 전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주)에네스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후 세션을 ‘석탄화력·원자력’과 ‘복합화력’ 2개 분야로 분리, 운영해 현장 기술자들의 지식습득 채널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날 오전 통합세션에는 ▲국내 전력시장 운영 현황(조춘택 전력거래소 부장) ▲KEPIC의 현황과 적용(안영태 전기협회 실장) ▲유량교정 설비(이재수 에네스지 과장) ▲질량 유량계(Coriolis 미터)의 측정원리 및 기술적 특성(Tim Patten 에머슨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사) 등에 대한 주제로 종합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세션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석탄화력과 복합화력으로 각각 나뉘 ▲석탄화력 성능진단 사례(구도훈 에네스지 수석연구원) ▲보일러 성능시험(최치영 한전기술 상무) ▲석탄/원자력 증기터빈 성능시험(김한주 두산중공업 과장) ▲플랜트 성능시험/발전비용 평가(김의환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 ▲복합화력 성능진단 사례(박병철 한전 전력연구원 차장) ▲가스터빈 성능시험(윤정태 한전KPS 책임) ▲HRSG 성능시험(김진국 두산건설 팀장) ▲공랭식 복수기(장세일 JNK히터 전무) 등 보일러 및 터빈계통 분야에 적용되는 KEPIC 성능시험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미나에 앞서 김무영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발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해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이 바로 국제적인 코드와 표준을 반영한 KEPIC”이라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KEPIC처, '2014 KEPIC-Week' 전용 홈페이지 오픈

대한전기협회 KEPIC처가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4 KEPIC Week' 행사를 홍보하고, 참석자들의 참가신청에 대한 편의를 돕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www.kepic.or.kr/week_2014)를 7월 초 오픈한다.

홈페이지에는 '2014 KEPIC-Week'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가 신청, 전력산업전시회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교통, 숙박, 주변관광, 산업시찰 등 참석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 실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수표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해설교육'을 실시했다.

전기협회 기술기준처가 주관한 이번 해설교육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최근 동향 ▲발·변전소 등 기계기구의 시설 ▲내선규정 안전보호 ▲전선로, 배선설비 및 저압기구의 시설 등 전기협회와 주요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됐다.

전기협회는 이번 해설교육을 통해 최신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실무기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기협회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3차 IEC 및 KS 표준 특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배전기능평가위원 기술세미나 개최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기능평가팀은 지난달 18일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수표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배전 기능평가위원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세미나는 양질의 배전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평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공·지중·활선·무정전 등 4개 공법 분야 평가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술세미나에서는 배전기능 평가위원들의 역할과 평가방법·기술, 평가 전반에 대한 사항 등 공통주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어 가공·지중·활선·무정전 등 4개 분야별 토론을 통해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기능인력 양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격인증과 관련, 공정한 평가기술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를 통해 배전공사의 시공품질의 향상과 전기기능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토론 결과, 전주 승주작업과 버켓트럭 고공 작업시 전기기능원의 안전을 고려한 평가방법 개선 등 자격시험 4개 분야 공법에서 40여 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전기협회는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한 뒤 향후 한전 본사 및 인재개발원과의 회의를 통해 평가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